전남지역 건설업체 갈수록 불황에 허덕

지난해 수주액 8조1천억… 2009년보다 13%나 줄어

업체수도 921개 7.4% 감소… SOC 예산 줄어 직격탄

지난해 전남지역 건설업계의 수주액이 3년 전보다 13%나 줄어드는 등 갈수록 불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건설업체들은 발주처의 지위 남용을 통한 이익침해와 정부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강화 등 크고 작은 부담도 존재해 정부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내놓은 '전남지역 종합건설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은 8조1443억원으로, 수주액이 최근 가장 많았던 2009년(9조3326억원)보다 12.7%나 감소했다.

업체 수도 지난해 921개로, 2009년 994개에서 73개(7.4%)나 줄었다. 또 지난해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88억4000만원으로 이 역시 3년 전 93억9000만원에 비해 5억5000만원(5.9%)이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업체는 평균금액 이하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 건수기준으로 보면 98.6%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남지역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지역 업체들은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전체 수주액 가운데 2009년 51.8%(전국평균 46.1%), 2010년 54.3%(전국평균 40.2%), 2011년 50.3%(전국평균 36.8%)로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건설물량과 이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건설공사 대형화 추세에 따라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가 지역물량까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늘리고, 업체의 간접비를 미반영하는 등 공사원가 절감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채산성도 악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과 원도급 업체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실태조사 일시 중지 등 건설업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남도회 관계자는 "등록기준 관련 주기적 신고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가 불시에 실태조사를 또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가 경영압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고기간 연장과 실태조사 일시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도 '갑'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도급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발주기관이 부당행위를 일삼더라도, 향후 공사수주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안고 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보해 힐링기금조성 협약 보해가 지난 1일 오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보해 힐링의 날 행사'에서 환아들을 위한 기금 조성 협약식을 맺고 환아들의 꿈을 응원했다. 왼쪽부터 국훈화순 전남대 병원 소아·청소년 과장, 임효섭 보해 대표, 박철민군, 배우 한가인. 〈보해 제공〉

신임 행장 선임 반발 광은 노조 천막 농성

취임식 봉쇄 출근저지 투쟁도 벌이기로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신임 행장에 김장학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이 선임된 데 반발해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광주은행 본점 로비에서 천막을 설치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집행부와 운영위원 등이 번갈아가며 밤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와 신임 행장 취임식을 원천봉쇄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김진배 광주은행 노조 정책실장은 "민영화가 우선 과제인데 과연 신임 행장 후보가 민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실행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 45년의 역사의 자존심과 지역 정서와 조직문화를 잘아는 내부출신 행장이 광주은행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앞으로 출근 저지를 포함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4일 예정된 광주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은 광주전남본부, 전남대·조선대서 채용설명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4일 신입직원 채용을 앞두고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각각 채용설명회를 갖는다.

전남대 설명회는 오전 11시부터 도서관 취업강의실에서 열리며 오후 2시부터는 조선대 해오름관 성공취업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인사관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0%를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랐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정기채용에서 7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채용안내 홈페이지(https : //apply.bok.or.kr) 참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농협-광주경찰청,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정순도)는 오는 5일 한가위 농축산물 특별판매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평동지역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를 비롯한 관내 생산 우수농산물과 한가위를 맞아 각종 과일세트, 제수용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농협 광주본부와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5회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6000만원 이상의 광주지역 농산물을 구매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24.81 (-1.55)	525.18 (+8.44)	2.92% (+0.04)	1100.50원 (-9.50)

기아차 '2014년형 레이' 출시

기아자동차가 내외장 색을 다양화하고, 주차브레이크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고급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2014년형 레이'를 2일 출시했다.

새 '레이'는 더욱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네이비 스페셜 컬러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차량과 차별화가 가능하며 '화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화이트 아웃사이드 미러' 등 수입차 시장에서 인기인 투톤 컬러 포인트로 색다른 디자인 요소를 더했다.

또 터보 모델은 '블랙&레드 내장 컬러'를, 바이퓨얼 및 에코다이나믹스 모델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브라운 컬러를 각각 기본 적용해 해당 트림의 특성을 표현했다.

가격은 ▲가솔린 모델 1245만원~1510만원 ▲TURBO 모델 1510만원~1570만원 ▲바이퓨얼 모델 1640만원 ▲에코플러스 모델 1560만원이다. (자동변속기 기본 적용).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총자산 5년간 25%나 증가 임직원 합심 금융위기 돌파"

내일 퇴임 송기진 광주은행장 간담회

"2008년 재임 당시 국제적 금융위기를 뚫고 총자산이 매우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4일 퇴임을 앞둔 송기진 행장은 이날 간담회를 하고 "지난 5년간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열정, 지역민과 고객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행장의 취임시기인 2008년 대비 광주은행의 총자산은 17조원에서 21조 2000억원으로 24.7%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9197억원에서 1조 3363억원으로 45.3% 늘어났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2.1%에서 14.3%로 상승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10년 1055억원, 2011년 1363억원, 2012년 1364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광은리더스클럽, 소호명가(所湖名家)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송 행장은 지난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사회공헌사무국'을 설립하고 부서장을 임원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사회공헌활동 선도기업으로서 광주은행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시켰으며 매년 당기 순이익의 5%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생경영을 펼쳤다.

또 은행권 최초의 육아휴직 중 여직원 승진 인사, 다자녀 직원 특별 호봉 가산제, 남직원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친화 경영으로 광주은행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송 행장은 "앞으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인생의 제2막을 구상해 나갈 생각"이라며 "광주은행의 동북아 중심은행, 2050년 세계적 100대 은행이라는 원대한 꿈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행장의 퇴임식은 오는 4일 오전 11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